

#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성과 정서조절능력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최미숙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 The Effects of Preschool Infants' Self-elasticity on Emotional Control, Empathy, and Teacher Efficacy

Mi Soog Choi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성과 정서조절능력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I 소재지의 W대학교 유아교육과 대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료처리는 SPSS 2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은 자아탄력성과 정서조절능력 및 공감능력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각의 하위변인에 있어서 자아탄력성에는 긍정성에 정서조절능력에는 자기정서조절능력에 그리고 공감능력에는 인지적 공감능력에 가장 큰 정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변인 중 일반적 자아개념, 자기책임, 개인적인 성실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이 정서조절능력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성실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아존중감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주장이 공감능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교육과정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사료가 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elf-esteem of pre-infant teachers on self-elasticity, emotional regulation, and empath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30 university students from W University's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in location I.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4.0. In addition, in each sub-variable, self-elasticity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positive correlation with positivity,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with self-emotional regulation ability, and empathy ability with cognitive empathy ability. Second, self-esteem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lasticity, and among the sub-variables, this study found that general self-concept, self-responsibility, and personal integrity in order were important determinants. Third, self-esteem has an influence on personal integrity in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Fourth, as for the effect of self-esteem on empathy ability, it was found that self-assertion had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empathy ability. These research results have led to re-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elf-esteem, suggesting that research on various educational activities that can improve self-esteem in the curriculum is needed.

**Keywords** : Pre-School Teacher, Self-Esteem, Self-Elasticity,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Empathy

---

이 논문은 2020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Corresponding Author : Mi-Soog Choi(Wonkwang Health Science Univ.)

email: czy12@wu.ac.kr

Received October 14, 2020

Revised November 16, 2020

Accepted December 4, 2020

Published December 31, 2020

## 1. 서론

한 인간의 성장 및 발달과정에 있어서 유아기는 인성을 비롯한 모든 영역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로 유아교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된다[1]. 그러므로 미래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유아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유아교육현장은 지금 2020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19 개정누리과정으로 유아의 ‘놀이’ 자체를 교육과정의 의미로 담고 있다. 이에 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역량 및 역할에 대한 전반적 변화요구에 따라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교육내용 분석 및 새로운 방향 제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인간은 누구나 유아기부터 자신만의 자아를 형성해 나간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유아의 행동과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다[2]. 선행연구에서는 유아기에 있어서 유아교사의 역할은 매우 비중 있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며, 유아에게 정신적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존재이고, 유아의 성격 형성 및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인적자원이 됨을 밝히고 있다[3].

최근 대학교육에서는 유아교사양성과 전문성 개발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논자는 예비유아교사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자아존중감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Mead는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부모, 교사, 또래와 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거쳐서 발달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3]. 또한 자아존중감은 예비유아교사에게 있어서 교육 수준의 질적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유아의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4].

특히 예비유아교사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아존중감은 유아교사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유아의 성장 및 상호작용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핵심역량이 되고 있다[5]. 아울러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교사의 전문적 자질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자아탄력성이다. 유아교사는 하루 일과 대부분을 유아들과 함께 보내게 되므로 유아교사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유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아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스트레스 상황에 잘 적응하고 상황에 맞는 요구를 지각하고 행동하며 대

인관계에 있어서도 자신감과 유능감을 보인다[6].

또한 예비유아교사가 앞으로 유아를 이해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능력과 공감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예비유아교사가 타인의 정서를 지각하고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서조절능력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공감능력에도 조절효과가 있기 때문이다[7].

이에 논자는 예비유아교사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 간의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각 변인들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진원(2010)은 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결정하고 유아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므로[1], 자아존중감이 높은 유아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김윤경(2011)은 자아탄력성이 높은 교사는 긍정적인 정서표현 행동을 높게 하는 경향이 나타나며[8], 유재경, 황지영, 박은미(2020)는 교사와의 F.G.I를 통해 ‘교사인성 및 전문성 개발’이 핵심역량의 우선순위를 차지함을 밝히고[9], 우수경, 서윤희(2016)는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의 인지적 요소가 의사소통능력 하위변인 낙관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10].

따라서 논자는 대학교육에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있는 우수한 유아교사를 양성하는데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이 4가지 변인들간의 영향력을 규명하여 21세기 미래유아교사 양성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4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성과 정서조절능력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계획서 심의 승인(연구승인번호 : WKIRB-201910-SB-073)후 중소도시 I시 소재 대학교 유아교육과 1,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절차 및 방법은 2019년 9월 2일에 연구자가 직접 본 연구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동의서를 작성한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2.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최인자(1995)가 Nathaniel Branden 「The Six Pillars of Self-esteem」(1992)과 「The Power of Self-esteem」(1994) 문헌을 번안하여 제작하고, 한인자(2005)와 한진원(2011)이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신뢰도를 검증한 자아존중감 척도[1]와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11]와 Salovey와 Mayer(1990)의 정서지능 초기 모형에 근거하여 문용린(1997)이 개발하고 타당화 한 정서조절능력 척도[12], 그리고 Mehrabian & Epstein(1972)의 정서공감 척도[7], Davis(1980)의 IRI 검사척도와 Bryant(1982)의 정서공감 척도를 번안한 도구[7]를 전병성(2003)이 수정하여 사용하고[13], 고경희(2017)가 사용한 공감능력 도구를 사용하였다[14].

### 2.2.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인자가 제작한 자아존중감척도 검사도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한인자가 연구한 유아교사 대상 연구에서는 .95, 한진원의 연구에서는 .9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15]. 자아존중감 검사도구는 7개의 하위영역으로 일반적인 자아개념 14문항, 의식적인 삶 4문항, 자기수용 3문항, 자기책임 7문항, 자기주장 4문항, 목적적인 삶 3문항, 개인적인 성실 5문항 등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양식은 5단계의 Likert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16]. 각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문항과 신뢰도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Self-Esteem Questionnaire and Reliability

	Subcategory	Question Number	Question Quantity	Reliability
Self-Esteem	General self-concept	1~14	14	.93
	Conscious life	15~18	4	.67
	Self-acceptance	19~21	3	.75
	Self-responsibility	21~28	7	.89
	Self-assertion	29~32	4	.83
	Purposeful life	33~35	3	.73
	Personal integrity	36~40	5	.82
All		40	.96	

### 2.2.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통제성, 긍정성 각각 9문항, 사회성 8문항으로 3개 하위영역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양식은 5점 Likert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최저 26점에서 최고 1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7]. 각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문항과 신뢰도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Self-Elasticity Questionnaire and Reliability

	Subcategory	Question Number	Question Quantity	Reliability
Self-Elasticity	Controllability	1~9	9	.90
	Positive	10~18	9	.90
	Sociability	19~26	8	.85
All		26	.96	

### 2.2.3 정서조절능력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alovey와 Mayer(1990)의 정서지능 초기 모형에 근거하여 문용린(1997)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성인용 정서지능검사인 AEQT(Adult Emotional Quotient Test) 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한 척도로 자기정서조절 8문항, 타인정서조절 7문항의 2개 하위영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양식은 5점 Likert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문항과 신뢰도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Overall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Questionnaire and Reliability

	Subcategory	Question Number	Question Quantity	Reliability
Overall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Self-emotional control	1, 2, 4, 6, 9, 10, 11, 13	8	.88
	Emotion control of others	3, 5, 7, 8, 12, 14, 15	7	.82
	All		15	.91

### 2.2.4 공감능력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경희(2017)가 유아교사를 위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로 Mehrabian & Epstein(1972)의 정서 공감 척도, Davis(1980)의 IRI 검사척도, 그리고 Bryant(1982)의 정서 공감 척도를 변안한 박성희(1994)의 도구를 전병성(2003)이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로 문항구성은 인지적 공감 15문항, 정서적 공감 15문항으로 총 30문항이다[17]. 응답양식은 5단계의 Likert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8, 12, 18, 22, 27문항은 역척점 문항이다. 각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문항과 신뢰도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Empathy Skills Questionnaire and Reliability

	Subcategory	Question Number	Question Quantity	Reliability
Empathy Skills	Cognitive empathy	1~15 (8*, 12*)	15	.72
	Emotional empathy	16~30 (18*, 22*, 27*)	15	.81
	All		30	.83

###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설문응답자 총 230명 중 일부 문항에 대한 미기재 1명을 제외 한 229명의 설문 응답자이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 24.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의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성,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및 해석

### 3.1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으로는 먼저 성별에서 남자 31(13.5%), 여자 198명(86.5%)로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불교 6명(2.6%), 기독교 44명(19.2%), 천주교 10명(4.4%) 원불교 9명(3.9%), 무교 160명(69.9%)로 나타났다. 통학에서는 집에서 통학 158명(69%),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자취 38명(16.6%), 기숙사 33명(14.4%)로 나타났다. 적성에서는 매우 맞지않다 2명(0.9%), 맞지않다 9명(3.9%), 보통이다 94명(41%), 맞다 100명(43.7%), 매우 맞다 24명(10.5%)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Research Subject Status

Spec.	Frequency	%	Total(%)	
Gender	Male	31	13.5	229(100)
	Female	198	86.5	
Religion	Buddhism	160	69.9	229(100)
	Catholic	10	4.4	
	Christian	44	19.2	
	Won Buddhism	9	3.9	
	Atheism	6	2.6	
School	At home	158	69.0	229(100)
	Footprints in one room or in another	38	16.6	
	dormitory	33	14.4	
	Not very fit	2	0.9	
	Not correct	9	3.9	
Aptitude	Is average	94	41.0	229(100)
	Right	100	43.7	
	It is very true.	24	10.5	
All			229(100)	

### 3.2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정서조절능력 및 공감능력의 상관관계 검증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정서조절능력 및 공감능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상관분석 결과 아래 Table 6과 같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은 자아탄력성( $r=.67, p<.001$ ), 정서조절능력( $r=.54, p<.001$ ), 공감능력( $r=.37, p<.001$ )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6].

Table 6.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Self-Elasticity,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and Empathy Ability of Pre-infant Teachers

	Self-Esteem						Self-elasticity				Emotional control ability				Empath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①	1																	
②	.95**	1																
③	.79**	.72**	1															
④	.77**	.71**	.53**	1														
⑤	.84**	.72**	.67**	.56**	1													
⑥	.79**	.68**	.55**	.64**	.61**	1												
⑦	.83**	.72**	.64**	.62**	.67**	.67**	1											
⑧	.85**	.76**	.59**	.61**	.68**	.61**	.73**	1										
⑨	.67**	.63**	.46**	.44**	.59**	.53**	.58**	.61**	1									
⑩	.61**	.55**	.41**	.41**	.53**	.50**	.58**	.60**	.89**	1								
⑪	.65**	.63**	.48**	.43**	.57**	.50**	.57**	.57**	.92**	.76**	1							
⑫	.48**	.46**	.32**	.32**	.45**	.40**	.38**	.43**	.82**	.59**	.62**	1						
⑬	.54**	.51**	.42**	.37**	.44**	.45**	.48**	.51**	.74**	.70**	.68**	.57**	1					
⑭	.59**	.55**	.46**	.43**	.46**	.48**	.53**	.55**	.74**	.72**	.70**	.52**	.93**	1				
⑮	.39**	.37**	.29**	.23**	.34**	.32**	.34**	.37**	.61**	.56**	.53**	.52**	.90**	.67**	1			
⑯	.37**	.30**	.26**	.26**	.35**	.35**	.35**	.33**	.48**	.46**	.40**	.39**	.60**	.55**	.55**	1		
⑰	.38**	.32**	.23**	.30**	.34**	.36**	.37**	.38**	.47**	.46**	.42**	.37**	.59**	.56**	.53**	.87**	1	
⑱	.25**	.20**	.23**	.14*	.27**	.25**	.25**	.19**	.36**	.35**	.29**	.31**	.45**	.40**	.43**	.87**	.52**	1

\*p<.05, \*\*p<.01, \*\*\*p<.001

①Self-Esteem ②General Self-Concept ③Conscious Life ④Self-Acceptance ⑤Self-Responsibility ⑥Self-Assertion  
 ⑦Purposeful Life ⑧Personal Integrity ⑨Self-Elasticity ⑩Controllability ⑪Positive ⑫Sociability ⑬Emotional Regulation  
 ⑭Self-Emotional Control ⑮Adjusting Others' Emotions ⑯Empathy ⑰Cognitive Empathy ⑱Emotional Empathy

### 3.3.1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81.22,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R<sup>2</sup>)는 44%로 나타났다[Table 7].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자아존중감(B=16.93, t=13.46, p<.001)이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하위변인 중 일반적 자아개념, 자기책임, 개인적 성실이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F=28.73, p<.001), 일반적자아개념(β=.30), 자기책임(β=.21) 개인적인성실(β=.19)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Table 7. The Effect of Self-esteem on Self-elasticity

Dependent variable: Self-elasticity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	VIF	statistic	
							B
Self-Esteem	Constant	29.06	5.05	5.75**		F=181.22*** R <sup>2</sup> =.44 Adj R <sup>2</sup> =.44 DW=1.59	
	Self-esteem	16.93	1.26	13.46***	1.00		
Sub-variant of Self-Esteem	Constant	29.68	5.24	5.66**		F=28.73*** R <sup>2</sup> =.48 Adj R <sup>2</sup> =.46 DW=1.57	
	General self-concept	6.98	2.33	.30	3.00*		4.29
	Conscious life	-2.34	1.75	-.10	-1.34		2.39
	Self-acceptance	-1.98	1.31	-.11	-1.51		2.25
	Self-responsibility	4.66	1.79	.21	2.61*		2.59
	Self-assertion	2.26	1.50	.11	1.51		2.30
	Purposeful life	2.97	1.69	.15	1.76		2.96
	Personal integrity	4.12	1.81	.19	2.27*	2.99	

\*p<.05, \*\*p<.01, \*\*\*p<.001

### 3.3.2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95.04, p<.001$ ),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 $Adj R^2$ )는 2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자아존중감( $B=8.55, t=9.75, p<.001$ )이 정서조절능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자아존중감 하위변인 중 개인적 성실이 정서조절능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14.43, p<.001$ ),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개인적 성실( $\beta=.21$ )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Table 8. The Effect of Self-esteem on Emotional Control Ability

Dependent variable: Emotional control ability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	VIF	statistic	
	B	Standard error	$\beta$				
Self-esteem	Constant	21.65	3.52			F=95.04*** R2=.30, Adj R2=.29 DW=1.69	
	Self-esteem	8.55	.88	.54	13.46***		
Sub-variant of self-esteem	Constant	21.62	3.72		5.81	F=14.43*** R2=.31 Adj R2=.29 DW=1.73	
	General self-concept	2.73	1.65	.19	1.66		4.29
	Conscious life	.47	1.24	.03	.38		2.39
	Self-acceptance	-.89	.93	-.08	-.96		2.25
	Self-responsibility	.39	1.27	.03	.31		2.59
	Self-assertion	1.53	1.06	.12	1.44		2.30
	Purposeful life	1.49	1.20	.12	1.24		2.96
Personal integrity	2.84	1.29	.21	2.21*	2.99		

\* $p<.05$ , \*\* $p<.01$ , \*\*\* $p<.001$

### 3.3.3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34.91, p<.001$ ),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 $Adj R^2$ )는

1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자아존중감( $B=.26, t=5.91, p<.001$ )이 공감능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자아존중감 하위변인 중 자기주장( $B=.11, t=2.06, p<.05$ )이 공감능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6.33, p<.001$ ), 공감능력에 대한 자기주장( $\beta=.19$ )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Table 9. The Effect of Self-esteem on Empathy

Dependent variable: empathy ability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	VIF	statistic	
	B	Standard error	$\beta$				
Self-esteem	Constant	2.37	.18			F=34.91*** R2=.13, Adj R2=.13 DW=1.89	
	Self-esteem	.26	.04	.37	5.91***		1.00
Sub-variant of self-esteem	Constant	2.35	.18		12.72	F=6.33*** R2=.17 Adj R2=.14 DW=1.87	
	General self-concept	-.06	.08	-.09	-.73		4.29
	Conscious life	.01	.06	-.02	-.19		2.39
	Self-acceptance	-.02	.05	-.03	-.34		2.25
	Self-responsibility	.11	.06	.17	1.71		2.59
	Self-assertion	.11	.05	.19	2.06*		2.30
	Purposeful life	.08	.06	.14	1.34		2.96
Personal integrity	.06	.06	.09	.88	2.99		

\* $p<.05$ , \*\* $p<.01$ , \*\*\* $p<.001$

## 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와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성과 정서조절능력과 공감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예비유아교사 교육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연구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중

심으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은 자아탄력성,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 중 긍정성에 가장 큰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성, 사회성 순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정서조절능력 하위요인 중 자기정서 조절능력, 타인정서조절능력 순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공감능력 하위변인에는 인지적 공감능력, 정서적 공감능력 순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적 자아개념 및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정서표현 행동과 효과적인 정서조절 기제를 활용하고[8],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0]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및 정서조절능력과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예비유아교사 교육과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갈 때 그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정서조절능력 및 공감능력까지도 함께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비유아교사들의 자아존중감 하위변인 중 일반적 자아개념, 자기책임, 개인적 성실이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정서조절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예비유아교사들의 자아존중감 하위변인 중 개인적 성실이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 하위변인 중 개인적 성실이 정서조절능력 하위변인 자기정서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공감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예비유아교사들의 자아존중감 하위변인 중 자기주장이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성과 정서조절능력 및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예비유아교사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이들 간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내

용 구성 및 교육과정 체계화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또한 미래사회 요구변화에 따른 선도적 교육환경 개선 및 현장전학 및 실습교과목 운영에 있어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열화하여 학생 자기주도적 교수-학습활동 전개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대학교육에 있어서 예비유아교사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향후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예비유아교사 교육과정에 있어서 자아존중감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종합해 보면, 예비유아교사들의 자아존중감은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 및 정서조절능력과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미래 사회변화 요구에 발맞춰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새롭게 방향이 전환될 수 있도록 예비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교수자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예비유아교사 교육과정에서 정규 및 비정규 그리고 교양 및 전공교과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모든 과제수행 과정이 자아존중감에 관한 직·간접적인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경험들을 축적하여 예비유아교사로서 확고한 교육신념 및 교육철학이 정립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교육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성 및 정서조절능력과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함으로써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에 소재한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특정한 곳에 편중되어 있고 3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 예비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연구도구도 자기보고식 질문지만을 사용한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점과 많은 질문 문항으로 인하여 연구대상자의 성의 있는 답변에 대한 한계성을 고려할 때 신뢰성 확보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향후 다양한 지역과 다학제 및 다기관을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확장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예비유아교사 역량기반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을 기반으로 한 교양교과 및 전공교과 그리고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화 구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미래사회에 필요한 우수한 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예비유아교사 교직 인성·적성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역량을 직·간접으로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열화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에 대한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4차산업 혁명시대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미래 유아교육을 준비하는 대학교육에서 현장과 연계된 온-오프라인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수업방식으로 전공 및 교직과목을 전개하여 이에 대한 수업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의수업 우수 운영사례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예비유아교사의 대학생활에서 성격유형별 자아존중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및 셀프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적용하고 이에 대한 효과검증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논자는 본 연구를 통해 예비유아교사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한 자아탄력성과 정서조절능력 및 공감능력까지 동시에 향상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근거가 될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가 예비유아교사에 한정되지 않고 고등교육에서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예비교사의 자아존중감을 핵심역량으로 도출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였기에 향후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가치 있는 연구결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가 대학교육 현장의 예비유아교사에게 있어서 자아존중감 증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오늘날 유아교육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제한되지 않고 시대적 요구에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역량 갖춘 우수한 유아교사를 양성하여 미래 시대에 세계적 수준의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예비유아교사를 교육하는데 있어서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재인식하며 본 논문을 마무리 한다.

## References

- [1] J. W. Han,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about Self-Esteem Analysis of Their Educational Demand for Enhancement of Self-Esteem.",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Administration*, Vol.14, No.3, pp.103-128, 2010.
- [2] M. S. Choi,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and Measures to Improve Personality Education Conducted by Won-Buddhism's Institution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Vol.44, pp. 45-73, 2014.
- [3] K. C. Kim, E. O. Kim, E. H. Kim, "Changes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f core competencies by student teaching",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10, pp.229-238, 2017.  
DOI: <http://dx.doi.org/10.35873/ajmahs.2017.7.10.021>
- [4] J. W. Han,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about Self-esteem and Analysis of their Educational demand for Enhancement of Self-esteem".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14, No.3, pp.101-128, 2010.  
UCI : G704-002073.2010.14.3.007
- [5] H. J. Han, "The Impact of Self-Esteem and Professional Recognition on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8, NO.4, pp.271-287, 2014.
- [6] J. M. Hong, "A Relations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Ego-resiliency and Communication Abilit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8, No.3, pp.1319-1334, 2017.  
DOI : <http://dx.doi.org/10.22143/HSS21.8.3.70>
- [7] J. E. Lee, S. E. Auh, "The Influenc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motional Regulation on the College Life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s of Cognitive Empathy and Moderation Effects of Emotional Empathy", *The Korean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24, No.3, pp.31-51, 2020.  
DOI : <http://doi.org/10.32349/ECERR.2020.6.24.3.31>
- [8] Y. K. Kim, Y. O. Yu, "Relationships among Ego-Resilience, Reflective Thinking, and Teaching Professionalism of Child Care Teachers", *The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Vol.14, No.3, pp.25-42, 2018.
- [9] J. K. You, J. Y. Hwank, "The Development of the Core Competency Model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based on 2019 Nuri Curriculum",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24, No.1, pp.435-456, 2020.  
DOI : <http://doi.org/10.22590/ecce.2020.24.1.93>
- [10] S. K. Woo, H. S. Yoon, "The relationship among optimism,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s in early childhood student teachers ",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4, No.1, pp.367-384, 2016.  
DOI : <http://dx.doi.org/10.20437/KOAECE21-1-15>
- [11] W. Y. Shin, M. G. Kim, J. H. Kim, " Developing



-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Vol.20, No.4. pp.105-131, 2009.
- [12] J. E. Kwon,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Child Communication Style and Peer Relationship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15.
- [13] B. S. Je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29.
- [14] K. H. Kyoung,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mpathy Training Program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Ph.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p.169.
- [15] M. S. Choi, W. Y. Choi, “The Effects of the ‘Raising a Good Mind’ Program on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pathy”.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Vol.60, pp.207-230, 2019.
- [16] M. S. Choi,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 Humanity Leadership Program on Personality, Self-Esteem, Leadership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8, pp. 441-448, 2019.  
DOI : <https://doi.org/10.5762/KAIS.2019.20.8.441>
- [17] H. J. Gil, Y. J. Lee,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atisfaction of the teaching practic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influenc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AJMAHS)*, Vol.7, No.1, pp. 907-916, 2017.  
DOI : <http://dx.doi.org/10.35873/ajmahs.2017.7.1.081>

---

최 미 숙(Mi-Soog, Choi)

[정회원]



- 2005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방법및공학과 (교육학 석사)
- 2012년 2월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교육학, 인성교육